



# 광남일보



주간 제 8069 호 대표전화 062-370-7000

GwangNam.co.kr

2026년 4월 21일 화요일 (음력 3월 5일)

## “전쟁에 에너지 안보 불안...해법은 재생에너지 확대”

### 여수서 녹색대전환 국제주간 개막

국제사회 “화석연료 의존 구조 확 바뀌야” 한목소리  
김성환 장관 “2030년까지 녹색 제조 강국으로 도약”  
김영록 지사 “에너지 신산업 육성해 탄소중립 실현”

중동 전쟁 여파로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국제사회가 전남 여수에 모여 재생에너지 확대와 국제 협력을 에너지 안보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관련기사 6면

20일 전남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녹색대전환(GX) 국제주간’과 ‘유엔기후 변화협약(UNFCCC) 제3차 기후주간 개막식’에서는 화석연료 의존 구조를 유지할 경우 산업과 경제 전반에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진단과 함께 전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날 개막식에는 김성환 기후환경에너지부 장관, 김영록 전남지사, UNFCCC 고위급 인사, 각국 정부 대표, 산업계·학계

관계자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화상 메시지를 통해 “녹색 전환은 환경을 넘어 미래 경쟁력과 생존이 걸린 과제”라며 “기존 전력 체계만으로는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대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에너지 전환을 지역 균형 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장관은 환영사에서 “한국을 비롯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은 단기적 시장 충격을 넘어 에너지 안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녹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0일 전남 여수시 소노컴 호텔에서 에너지·플랜트 분야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 녹색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후에너지환경부

색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위기와 에너지 안보는 어느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국제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은 재생에너지 중심 지이자 에너지 대전환의 최전선”이라며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산업 기반을 바

탕으로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해 탄소중립과 지역 발전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수에서 열리는 이번 국제주간이 각국의 전략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국제기후와 주요국도 재생에너지 확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

조하고 나섰다. 우고 아스트루 주한 EU대사는 “유럽연합은 에너지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청정에너지 생산과 저장, 공급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는 그 핵심으로, 발전 비중을 두 배 이상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타케히코 마츠오 일본 경제산업성 차관

은 “녹색대전환 투자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산업에 집중될 것”이라며 “수소와 재생에너지 중심의 공급망을 강화해 에너지 사용과 제조 공정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2면서 계속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 “5·18정신 헌법 수록, 남은 건 정치권 결단 뿐”

광주시 5·18정신계승위원회  
국회에 개헌 착수 공식 촉구  
28일 국회서 결의대회 예정

광주지역 사회가 5·18정신의 대한민국 헌법 전문 수록을 제22대 국회에 공식 촉구하고 나섰다.

6·3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려면 개헌안이 다음달 10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5·18정신계승위원회는 20일 시청 브리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80년 5월 시민들이 총칼에 맞서 지켜낸 것은 인간 존엄이라는 보편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향한 인류 공통의 열망이었다”며 “5·18정신을 국가 최상위 규범인 헌법 전문에 새기는 것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5·18정신계승위원회는 이날 국회에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먼저 국회가 정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해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안 의결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평화의 보루임을 전 세계에 선포해야 한다. 이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서 인류 공통의 자산이 된 5·18의 가치를 헌법 전문에 수록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공고히 하고 전 세계 민주 시민에게 연대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부마민주항쟁과 5·18정신이 헌법적 가치로 승화될 때 비로소 과거를 치유하고 다음 세대에 정당한 나라를 물려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강기정 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은 3·1운동과 4·19혁명을 넘어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국민적 합의는 오래 전에 끝났고 이제 남은 것은 정치권의 결단이다. 국

민의힘은 내란 세력과 절연하는 모습을 보여줄 기회이고 민주당은 40년 광주의 숙원을 풀어내는 뒷심을 발휘해 달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오는 28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앞에서 5·18정신헌법전문수록국민추진위원회, 부마민주항쟁헌법전문수록법시민추진위원회, 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등과 함께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를 연다.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안에 대한 정치권의 초당적 찬성과 국회 최종 가결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광주 5·18단체와 시민단체 회원들은 앞서 오는 23일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 사발 등에 나선 예정이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해 21일 광주를 방문해 5·18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옛 전남도청 복원 현장을 찾은 예정이다.

영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 전남광주통합시교육감 선거 ‘단일화 전쟁’

진영 결집 속 8→5명 재편...최종 ‘3자 압축’ 전망  
‘고두갑·김해룡·이정선’...‘정성흥·장관호’ 합이

전남과 광주의 행정통합이라는 거대 흐름 속에서 치러지는 통합특별시교육감 선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그간 통합단체장 선거 이슈에 가려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교육감 선거전은 최근 후보 간 단일화와 연대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현재 선거 구도는 빠르게 재편되는 양상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에 맞서 이정선광주시교육감과 김해룡 전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 고두갑목포대 교수가 단일화에 나서기로 하면서 광주와 전남 등·서부권 결집이 가시화됐다. 이에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지방장 출신인 정성흥(광주)·장

관호(전남) 예비후보도 단일화에 합의하며 진보진영 역시 세 결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로써 당초 8명이던 예비후보 구도는 5명 안팎으로 압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고두갑·김해룡·이정선 예비후보 3인은 20일 후보 단일화에 공식 합의했다. 김해룡 예비후보는 이날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철학과 정책 방향이 유사한 후보 간 단일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일 후보는 여론조사 100% 방식으 결정될 예정이며, 단일화 시기와 방식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에는 장관호·정성흥 예비후보가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추진을 선언했다. 두 후보는 여론조사 100% 방식으로 단일후보를 결정하고, ‘통합 공천위원회’ 구성에 공동 정책과 선거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 노동·시민 사회단체의 지지를 기반으로 한 진보 진영의 결집이 본격화됐다는 평가다.

반면 강숙영 전남도교육청 장학관과 최대욱 전 한국교총 부회장은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 노선을 유지하며 외연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가장 늦게 선거전에 뛰어들 김대중 예비후보 역시 조직 결집보다는 정책 경쟁에 집중하는 ‘정면 돌파’ 전략을 택하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향후 추가 단일화 여부에 따라 선거 구도가 3자 대결로 압축될 가능성을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제28회 함평 나비대축제**  
봄비와 활박이가 함께하는 첫 소풍

**2026. 4. 24. (금) - 5. 5. (화)**  
함평엑스포공원

주최 | 함평군 주관 | 함평축제관광재단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 한국관광공사 한국도로공사 KORAIL 한국농촌학회 (사)한국농촌진흥연구원